

“민간공원 난개발 막자” 부지매입액 증액

광주시의회,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550억 늘어난 650억 의결

“도시공원 사수 시민 염원 담아 시의회 의지 분명히 한 것”

광주시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하기 위해 내년 광주시의 공원 부지 매입 예산을 550억원 증액했다.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광주시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진숙)는 2018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

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 대상 25개 공원에 대해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 공원 부지는 전면 매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시는 민간공원의 사유지를 매각해 1600억원을 조성하고 2017년부터 ~ 202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해 15개 공원

부지 매입비 21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100억원을 계상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주시가 애초 민간공원 내의 사유지를 매각하여 조성하려 했던 1600억원은 ‘민간 거버넌스’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인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사유지 매각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총부지매입비 2100억원 중 2017년 집행한 15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950억원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년 650

억원을 조성할 것을 결의하고, 2018년 본예산안에 650억원을 계상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는 650억원을 계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당장 650억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전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광주시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인 것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시공원을 지키자 한다”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광주시의회가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34㎢

전남 16.2% ‘최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작년 말보다 0.3%(60만㎡) 증가한 2억3416만㎡(234㎢)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억339㎢)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1조857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작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면적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에 이어 2015년 9.6%까지 올랐으나 작년은 2.3%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0.3%로 더 내려갔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 증가율도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23.0%로 줄기 시작해 작년 13.1%에 이어 올 상반기는 6.5%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은 지역별로 대전이 80.0%(1만2000㎡), 제주는 11.6%(97만4000㎡) 늘었으나 부산은 8.2%(4000㎡), 경기도는 1.8%(6만2000㎡) 줄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땅의 절반은 미국인의 것이다. 미국인 보유 토지는 작년 말 대비 0.5% 감소한 1억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등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고 유럽이 20.8%, 일본 8.0%, 중국 7.0%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786만㎡(16.2%)로 가장 높았다.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이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영흥대교 뉘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문 대통령, 뉘싯배 침몰 사고 희생자 추모 묵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보좌진들이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뉘싯배 침몰 사고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영흥도 뉘싯배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0초간 묵념했다.

이날 묵념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전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침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 영흥도 뉘싯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어느 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중 누구도 크게 웃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묵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묵념을 마친 뒤 “어제 뉘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

신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제도 및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자동차 부품산업 문제점 개선할 것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정위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來光

“광주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취임이후 광주를 처음 찾은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불공정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산업마다 불공정 민원이 있다”며 “부품업체의 신고 사건 외에도 별도의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민원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지방사무소가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해왔는데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았다”

며 “앞으로는 본부에 기술탈취 전담 데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해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은 ‘공정 경제’의 틀이고, (이런 기초하에)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 발생에 따른 감의 보복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 공기업·출연기관장 인선

내년 6·13 지방선거 전까지 ‘스톱’

전남개발공사·여성플라자 원장 등 대행 체제 검토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도 공기업 대표와 출자·출연기관장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기관의 성격과 비중 등에 따라 공모 연기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후임 기관장 임명이 필요한 유관 기관은 전남개발공사, 전남 여성플라자,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창렬 원장 연임이 결정돼 지난 30일 임기 만료 후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양지문 사장이 경영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연임 기준에 미달해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임기 만료를 전후해 바로 후임 사장을 공모할지, 지방선

거 때까지 대행 체제로 꾸려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방선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기획관리실장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여성플라자 원장은 지방선거 때까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대행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지난달 전임 원장이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로 옮겨 공석이 된 청소년 미래재단 원장은 공모를 통해 새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모 연기, 대행 체제 여부 등 결정이 기관별로 엇갈리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상당수 기관장 선임을 차기 전남지사 선출 이후로 미루는 것을 두고도 관련 기관장 인사에 미치는 전남지사의 입김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자·1순위

• 여수 거문도 섬 모든 부동산
• 2년안에 투자비용 100% 수익
상당문의 H.010-3605-5000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헌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남구 봉선동 1층상가 120㎡ 인테리어 잘되어 있음,
최고요지, 아파트정문앞 상가 밀집지역 보5천만
월340만원, 권리금 일천만원(조정가)
▶ 금곡동 층상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장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가),
용자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화)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혈당조절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세요?
삼성제약 HealthCare의 당디펜스(D.Defense)로 혈당걱정 NO!!!
당디펜스(D.Defense)가 당신의 혈당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적합한 기능성 원료

당 디펜스 KNSA
식후 2غم씩섭,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임의번호 : 2179299

삼성제약 HealthCare의 당디펜스(D.Defense)는
한국식약처(KFDA)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디펜스(D.Defense)는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제조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한국식약처(KFDA)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고시형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